

첨단기술은 사수하라 총성없는 경제전쟁의 시대,

기술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생명의 젖줄이다.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타국의 산업기밀을 입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시도가 증가해 2004년 26건의 시도에 3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될 뻔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집계는 2500억달러, 독일도 연간 700~800억유로에 이르는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의 최우선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머리와 몸으로 세계 12위의 경제국에 진입하였고, 세계 7위의 기술개발 투자국으로 성장해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의 문턱에 와있다. 이는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그 결과로 반도체분야 세계 1위, 휴대폰, TFT-LCD분야 선두주자라는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유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최대의 무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유출 의식 및 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연간 2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개발한 첨단기술과 인력을 제대로 보호할 제도나 의식 등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조사한 '기업보안실태'에서 벤처기업의 보안유지는 보안 담당부서 8.8%, 방화벽 19.9%, 외부인출입금지 53.8%로 허술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심히 개발된 기술이 언제 어디서든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도에 '경제스파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신산업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기술의 불법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출이나 이전 등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술유출 방지는 기업만의 일이 아닌 전국민적 일이다. 우리는 이미 수출 2천억달러를 달성할 정도의 기술수준과 능력을 가지고있어 지켜야할 기술도 많다. 정부도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기술을 지키려는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옛말에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 기술에 의해 존재가 결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기술개발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